

도시 근린공원의 방문제약 요인*

-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

이시영

배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Constraints of Visit to Community Park - Focused on the TaeJon City's Community Park

Lee, Shi-Young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Paicha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constraints on visits to urban community parks and to find ways to elevate the efficient use of parks. To achieve this, the study relied on empirical study method and the descriptive method; additionally, present condition survey was performed with a user interview, on the assumption that a park visit is a form of leisure.

As a result, the item of 'insufficient lighting facilities' shows the highest mean and the item of 'low quality of park' follows. Previous research also revealed that the item of 'the lack of lighting facilities' is a major factor on user dissatisfaction, so a design and management program for night time users are fully researched and elaborately accomplished. Also, the high response of 'low quality of park' shows that the park supply policy in Korea focusses mainly on quantity so far, and it shows that user's dissatisfaction for park facilities become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of park visit.

The factor analysis, on the object of 35 items except 2 items, appeared 5 factors: accessibility, inner discord, companion, family matters, park-itself-matters. Oneway Anova test showed that 4 factors except 'park-itself-matters' have reliable difference in constraint cognition by age and education. The visit constraint of 'park-itself-matters' did not appear different by any personal characteristics. Without regard to personal characteristics, it is regarded that this factor has the greatest effect upon park visits.

In general, people who are disadvantaged strongly cognize constraints even in leisure such as a

* 본 연구는 2003년도 배재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됨.

† Corresponding author : Shi-Young Lee,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Paichai University, Taejon 302-735, Korea. Tel. : +82-42-520-5881, E-mail : sylee@pcu.ac.kr

park visit, which is a simple and inexpensive leisure activity. Therefore, a park like a pocket park, which is small but located in a neighborhood, is more needed than a central park like a symbolic and huge park in every new city. Careful concern for night activity should be accomplished in the planning process.

Key Words : Night Lighting Facilities, Park Constraint, Park Visit, Urban Community Park, Pocket Park, Constraint

I. 서론

현재 도시민들은 과밀한 도시생활,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가와 여가시간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가행동은 다양해짐과 동시에 활발해지고 있다(최기수와 김한배, 1995).

또, 주거지에 근접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게 되었고, 현재의 도시 여건에 맞추어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한 장소로서 도시 공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공원의 공급에 치중하여 왔으나 새로운 공원의 건설은 토지부족,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런 악조건 속에 건설된 근린공원의 이용률은 도시 소공원의 경우 일주일에 1~2회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35~53%에 이르고 있다(안진성, 1999).

노동생산성의 증가, 자유시간의 증가로 공원방문의 기회가 증대되었다는 점, 인간 생존의 기본 욕구이며, 경관·위락·사회심리·교육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공원 방문 및 이용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공원 이용 후 평가에 의해 밝혀진 공원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거리, 시간, 이용의 불편함, 시설부족 등 공원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들이 전부였다. 이것은 공원의 이용 만족도에 초점을 두어 연구된 결과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 외에도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공원 방문의 제약 요인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원 방문을 여가활동의 한 가지로 보았

다. 이것은 여러 여가의 제약 연구들에서 공원 방문은 가정 지향적인 여가로 분류하고 있음을 따랐으며, 이들 여가의 제약요인들에 의해 공원 방문이 저해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공원 방문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일반적인 여가와 는 차이가 있다. 쉽게는 특별한 기술의 습득이나 실력향상을 위한 꾸준한 연습 등이 필요 없으며, 공원방문과 같은 여가를 즐길 때 제반 비용 또한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여가 제약요인과는 다른 제약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원 방문의 제약요인을 밝혀 공원조성시 기초 자료와 공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연구사

공원방문을 여가 활동으로 볼 때 공원방문 제약은 여가제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가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서구의 선진국에서도 과거에는 여가활동이 비생산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편견을 가졌으나 점차 생산과 여가활동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였으며 재생산 의욕의 고취와 건전한 사회육성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이정화와 김준기, 1996).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기능은 피로를 풀고 생명력을 순환시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키는 신체적 기능, 사회적 책임에서 오는 일상의 압력을 기분전환을 통하여 해방시켜주는 심리적 기능, 개인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적 기능, 그 밖에 사회적, 문화적, 사회 심리적 기능이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신희수, 1998). 따라서, 여가란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으로 노

동, 가정, 사회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휴식, 오락, 사회 참여, 창조적 능력의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석희, 1998).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삶에 필요한 것이 모두 충족된 후에 남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둘째, 여가를 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고 셋째, 즐겁고 그것 자체를 위해 행하여지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반면, 제약(Constraint)은 “특정한 행위에 종사할 수 없는 이유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된다(Jackson, 1988).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는 비참여의 원인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참여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킬 수 있고,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여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여가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제약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구의 대상은 주로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제약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제약요인의 측정 변수나 여가활동 파악에 있어서 기혼 여성에 한정되어 연구되었다. 그 후 강석희(1998)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 요인을 도시 거주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하고, 인간내적 제약·대인적 제약·구조적 제약의 여가 제약 3개 유형이 연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위계적 과정임을 밝힌 바 있다.

도시 근린공원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공원 이용실태와 이용만족도 평가는 대표적 공원들마다 연구 주체를 달리하며 조사·연구되고 있다(신석영, 1982; 박영수, 1988; 김용수와 박수범, 1989; 김유일과 황장하, 1989; 허준, 1990; 박승범, 1991; 정영한, 1994; 김한도, 1995). 이들 연구들은 주로 물리적 환경에 따른 이용자의 공원 이용실태 분석과 공원의 가치 또는 개선방향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 공원 환경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만족 혹은 불만족의 원인을 찾아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공원의 여가 공간으로서 기능과 그 이용에 대한 연구로는 여가 시간의 분류와 참여하는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근린공원의 인지도와 경험도에 관한 연구(김무창, 1994), 여가 공간으로서 도시공

원에 관한 연구(신희수, 1998; 김홍운, 1989), 도시공원 이용행태를 통한 여가활성화방안 연구(전영철, 1996) 등이 있다. 위의 연구들은 도시 근린공원에서 여가 활동의 참여, 선호, 태도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인데, 비참여, 제약, 장애 같은 부정적인 측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여가 제약연구가 비참여의 원인을 분류함으로써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여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의 잠재 이용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원 방문을 증대시키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공원 방문의 제약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혀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대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근린공원 방문의 제약요인을 밝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여가활동과 도시공원에 대한 제이론을 연구논문, 관련서적, 간행물 등을 탐색하여 서술하는 기술적인 방법과 둘째, 근린공원 방문 제약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실증적인 방법을 주 연구방법으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이를 현장방문을 통해 이용현황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면접 등을 실시하였다.

여가 연구에서 여가활동의 분류를 보면, 표영희(1997)는 신체적 여가활동, 가정지향활동, 자기개발활동, 시간소일활동, 사교활동, 놀이·오락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강석희(1998)는 가정 지향적 여가활동,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시간소일적 여가활동, 신체적 여가활동, 놀이 오락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고, 이정미(1997)는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 관광 행락활동 등 5개로 구분하였고, 모두 ‘공원 방문하기’를 가정 지향적 여가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여가 제약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기본으로 공원방문이라는 특정 여

가에 맞추어 설문항목을 기본계약 유형인 인간내적, 대인적, 구조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정확한 결과를 위해 예비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설문조사는 7월 10, 11일 양일간 행해졌으며, 대전시 5개 구에서 각 10부씩 총 50부를 설문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의 신뢰도 검사는 검사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Cronbach's α 를 사용, 0.78의 높은 수치를 보여 본 조사에서 해당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7월 28일에서 8월 4일까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5개 구 인구수에 비례하여 서구 100부, 그 외 4개구에 각각 50부씩 총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결과 270부를 수거하여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총 25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1 참조). 설문분석은 SPSS ver. 10.0¹⁾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계약별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전체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verimax을 통해 추출된 요인을 가지고 요인별 계약인지 정도를 밝히고 기본계약 유형에 따른 일원 분산분석을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각 계약을 인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IV. 연구 결과

1.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는 기존 여가계약 연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설문지 측정변수 항목을 기본으로 하였고, 공원방문이라는 국한된 활동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갖기 위해 신뢰도

표 1. 설문지 배포현황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합
총배부수	100	50	50	50	50	300
분석설문수	90	34	41	37	48	250
불량	7	4	3	1	1	19
미수거	3	12	3	12	1	31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37개 계약평가항목²⁾의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 는 0.87로 나타났고, 또한 각 계약평가항목의 신뢰도를 기본계약 유형별로 검사결과, 인간내적계약³⁾ 평가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0.77, 대인적 계약⁴⁾ 평가 항목은 0.81, 구조적 계약⁵⁾ 평가 항목은 0.85로 모두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즉, 전체 계약평가항목과 기본계약 유형별 항목은 공원 방문제약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자가 46%, 여자가 54%로 고르게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45.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6.4%로 많았다. 2,30대의 비율이 71.6%에 달해 연령 분포가 치우친 감이 있다. 직업은 (반)숙련, 서비스, 단순 노동적이 37.2%, 학생이 28.4%로 많았고, 그 외 항목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 대졸이 58.8%, 고졸이 31.2%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 유무는 기혼이 52.0%이고, 미혼이 48%로 비슷한 비율로 모집되었다(표 2 참조).

3. 공원방문 제약의 인지

공원 방문을 제약하는 37개 요인들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각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하도록 하였다. 인지된 여가 제약의 상위항목들은 표 3과 같다.

계약항목에서 S14(야간조명시설부족)가 평균 3.18로 가장 큰 제약이었으며, S10(공원의 수준 낮음)항목이 평균 3.05를 보여주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야간조명시설 부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안전성이고 하나는 야간시 공원 이용으로 볼 수 있다. 안전성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설문항목 중 야간조명과 별도로 공원 안전성 항목이 있었으므로 야간 이용에 대한 욕구와 이를 위한 시설의 미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진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자	115	46.0
	여자	135	54.0
연 령	만20~29세	113	45.2
	30~39	66	26.4
	40~49	45	18.0
	50~59	22	8.8
	60세 이상	4	1.6
직 업	전문·관리직	12	4.8
	사무직	34	13.6
	서비스·단순노동직	93	37.2
	전업주부·무직	40	16.0
	학생	71	28.4
학 령	중졸	17	6.8
	고졸	78	31.2
	대재/대졸	147	58.8
	대학원졸 이상	8	3.2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7	6.8
	100~150 미만	27	10.8
	150~200 미만	38	15.2
	200~300 미만	89	35.6
	300~500 미만	64	25.6
500만 원 이상	15	6.0	
결혼유무	기 혼	130	52.0
	미 혼	120	48.0

표 3. 각 제약별 강하게 인지하는 상위 10개 항목

항 목	평균	표준편차
S14. 야간에 조명시설이 부족하다.	3.18	1.08
S10. 공원시설의 수준이 낮다.	3.05	1.07
S11. 내가 편한 시간에 이용할 공원이 없다.	3.02	1.12
S 7.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	2.94	1.20
S 1. 직장 및 가사일 때문에 공원을 방문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2.94	1.17
IA3. 직장일이나 가사일 때문에 피곤해서 공원을 방문할 여력이 없다.	2.93	1.26
IE1. 가족들의 시간이 부족해서 나와 함께 공원에 갈 수가 없다	2.87	1.07
S13. 공원의 안전을 믿을 수 없다.	2.82	1.07
IE5. 가족이 함께 방문할 만한 공원이 없다	2.77	1.13
IE9. 공원을 함께 방문할 친구와 동료가 시간이 없다	2.77	1.15

본 조사대상지는 지역별로 신·구도심이 혼합되어 있고 이용자가 느끼는 공원 역시 신·구공원이 혼재되

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된 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야간조명⁹⁾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둠에 의한 안전성의 문제나 심리적 불안감은 이용자의 행동에 부정적인 심리효과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공공공간의 이용을 회피하는 행동을 초래(Rohe and Burby, 1988)하기 때문이다. 이미 도시민의 적극적인 야간활동은 오래전부터 행하여져 왔고 야간이용에 대한 수요도 급증가하고 있다(최연철과 김진선, 2001)는 것처럼 보다 실질적인 접근계획이 요구된다.

'공원의 수준 낮음'항목의 경우는 이용자의 수준에 비하여 그 공원 수준이 따라오지 못함과 그로 인해 이용률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것은 그동안 근린공원의 양적 공급에 치중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적 공급에 치중한 결과 상위 10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이용할만한 공원이 없다'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규상 도시 계획구역 내에서의 1인당 공원면적은 6㎡ 이상으로 되어 있고, 국내 평균 4.8, 계획 23.2㎡이나 대전광역시 1인당 공원면적은 계획 35.14㎡, 조성 11.82㎡를 확보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01). 국내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공원면적은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한 공원면적에도 접근의 불편함이나 시설의 미비, 매력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게 된다(김무창, 1994)는 연구와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공원 안전을 믿을 수 없음' 항목은 앞서 언급된 조명시설과도 연관 있는 것으로 공원 관리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공원의 건설과 함께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항목은 함께 같이 방문할 동료가 없음이 두 항목, 응답자의 시간이나 체력 등 여건이 되지 않음이 두 항목이 있었다. 여가의 기본적 의미에서 여가활동은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요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시간(Parker, 1976)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공원방문도 마찬가지로 도시생활에서 바쁜 일과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의 부족은 앞으로 토요 휴무와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제약요건의 완화가 예상된다.

4. 요인분석

전체 37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0.87이고 이들 항목 중 A10과 S14 항목 제거 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A10과 S14를 제외한 35개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으로 고유치 1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요인회전(verimax)을 한 결과 모두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접근성'으로 S11, S12, S4, S5, S6, S7, IE5, IE11이 속하며 14.95%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인 2는 '내적갈등,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IA5, IA6, IA7, IA9, IA11, IE4가 속하며 9.20%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인 3은 '동료, 가족과의 관계'로 IE2, IE3, IE7, IE8, IE12가 8.38%의 설명력을 가진다. 나머지는 표 4와 같다.

8개 요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6이 알파 0.63으로 가장 낮았으나 충분히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요인 1부터 요인 8까지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분석된 8개의 요인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요인 1과 요인 7은 '접근성', 요인 2와 요인 8은 '심리적 요인', 요인 3과 요

표 4. 요인추출

구분	특성	항목	설명력	고유값
요인 1	접근성	많은 교통비, 접근 불편, 이용할 공원 없음, 교통 불편, 이용할 공원 없음	14.95	5.23
요인 2	내적갈등, 심리적 문제	시간과 경제적 낭비임, 신앙생활, 외모, 주위의 눈치, 가족의 반대, 부상의 염려	9.2	3.22
요인 3	동료, 가족과의 관계	가족들이 공원방문을 싫어함, 가족건강, 친구 동료의 몸이 불편함	8.38	2.93
요인 4	더 중요한 가정사, 중요도 떨어짐	직장 및 가사일, 경조사 참여, 가정사로 인한 피곤함, 친지 방문으로 인한 시간부족	7.88	2.75
요인 5	동반친구	동료의 가정사 및 직장일, 동료의 부재	6.33	2.21
요인 6	공원 자체문제	공원이 혼잡함, 공원수준 낮음, 안전, 가꾸픈 공원 없음	5.65	1.97
요인 7	방문자 체력	체력 약함, 육체적 장애	5.15	1.80
요인 8	귀찮음	귀찮음	4.35	1.52

인 5는 '동료, 가족관계' 요인 4는 '가정사, 중요도 떨어짐', 요인 6은 '공원자체문제'로 총 5가지의 요인으로 요약하였다. 도시근린공원에서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간편하고 쉽게 접근이 용이한 공원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원방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여타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여가 활동과는 다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동료, 가족 등 동반자와 함께 공원을 즐기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여 주고 있다.

공원자체문제는 현시대에 맞추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원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개인특성에 따른 요인별 제약인지의 차이

다섯 개 요인별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제약을 인지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접근성'은 연령, 학력, 직업, 월 가구소득, 생애주기의 개인특성 중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공원방문에 제약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5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약인지를 하고 있으며, 60대, 40대, 20대, 30대의 순서로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원에의 접근을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학력은 높을수록 제약을 약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 사후 테스트 결과 대학원 재학 이상과 그 이하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가구 월 소득에 의한 차이는 100~150만원, 500만원 이상,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500만원의 순서로 공원 접근성에 의해 제약받고 있었다. 이것은 이용의 편리성에 관한 것으로 공원의 매력도와의 상관있다고 볼 수 있다. 멀거나 접근이 어렵더라도 방문할 수 있는 방안연구가 필요하며 근린공원은 접근성, 인지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심리적 요인'은 연령, 학력, 생애주기의 개인특성에 따라 제약을 인지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50대, 60대, 40대, 20대, 30대의 순서로 심리적 요인에 의해 공원 방문을 강하게 제약받고 있었다. 학력변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제약을 약하게 받고 있었고, 대학원 재학 이상과 대졸 이상/고졸, 중졸의 세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

생애주기는 노년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신혼기의 순서로 제약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사후테스트 결과 신혼기, 자녀교육기/출산 및 양육기, 자녀 결혼기/성년기, 노년기의 네 시기로 그룹이 지어지는데, 결국 생애 후반기로 갈수록 공원방문에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조건 중에서 개인적 문제에 속하므로 공원계획요소와는 상관성이 적고, 사회적 인자로 받아들여 공원 특성화방안에 반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동반자’는 연령, 직업, 학력, 생애주기의 4가지 개인 특성에 따라 인지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앞의 두 변수와 동일한 순서로 제약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후 테스트 결과 20대/30대/40대와 50대/60대의 두 연령으로 분류되었다. 공원 방문을 위한 동반자는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공원 방문을 제약하는 강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직업은 주부 및 무직, 노동직 및 서비스직, 학생, 사무직, 전문직 및 관리직의 순서로 제약을 인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접근성 요인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후 테스트 결과 역시 대학원 이상과 그 이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졌다. 생애주기는 생애 후반으로 갈수록 공원 방문을 함께 할 동반자 문제에 의해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가정사’는 연령, 직업, 학력에 의해 인지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령은 50대, 60대, 30대, 40대, 20대의 순서였으며, 20대와 그 외 연령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것은 결혼 여부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혼자의 경우가 미혼자보다 가정일에 의해 여유시간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직업은 노동 및 서비스직, 전문 관리직, 주부 및 무직, 사무직, 학생의 순서로 가정사에 의해 공원 방문을 제약받고 있었다. 학력은 중졸이하, 대졸, 고졸, 대학원 이상의 순서로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중졸 이하와 그 이상의 두 그룹으로 분류되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정사에 의해 공원 방문을 더 강하게 제약받고 있었다.

‘공원 자체의 문제’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제약을 인지하는 것에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개인적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내적 제약의 차이 : ANOVA

변수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F
직업	4.30	4	1.07	5.24	0.00
나이	6.91	4	1.72	8.88	0.00
학력	7.41	3	2.47	12.88	0.00
생애주기	6.36	5	1.31	6.42	0.00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제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동량의 투자 시 가장 폭넓은 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6.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간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인지의 차이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공원 방문제약의 인지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인간 내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간 내적 제약은 나이, 직업, 학력, 생애주기에 따라 유의 수준 $p < 0.05$ 에서 인지정도의 차이가 있었다(표 5 참조).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애 후반기에 들수록 공원방문제약을 강하게 인지하였고, 전문 관리직, 사무직, 학생과 같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직업보다 전업주부, 무직, 단순 노동직이 더 많이 제약을 인지하고 있었다(표 6 참조). 기혼 여성의 경우 인간내적 제약요인이 여가 활동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다(표영희, 1997)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 직업과 학력의 경우 후광효과(halo effect)⁶⁾를 통해 설명이 가능한데, 후광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제약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직업의 경우, 단순 노동직, 무직, 주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덜 인정받고 스스로도 자의식 형성이 약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원이라는 공공의 장소, 공개되고 개방된 장소에 나서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으로 내적 제약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적 제약의 경우, 나이, 학력, 생애주기에 따라서

표 6.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간내적 제약인지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연령	만 60세 이상	2.38	0.60
	만 50~59세	2.37	0.59
	만 40~49세	2.02	0.40
	만 20~29세	1.84	0.42
	만 30~39세	1.83	0.41
직업	(반)숙련·서비스·노동직	2.06	0.46
	전업주부·무직	2.00	0.51
	학생	1.83	0.40
	사무직	1.75	0.43
	전문 관리직	1.70	0.48
학력	중졸	2.51	0.38
	고졸	1.98	0.48
	대재/대졸	1.86	0.41
	대학원졸 이상	1.60	0.49
생애 주기	노년기	2.67	0.38
	자녀결혼기	2.21	0.67
	자녀성년기	2.18	0.50
	자녀교육기	1.92	0.39
	자녀출산 및 양육기	1.90	0.42
	신혼기	1.55	0.41

* 평균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리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적 제약의 차이: ANOVA

변수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F
나이	3.86	4	0.96	3.52	0.008
학력	4.60	3	1.53	5.69	0.001
생애주기	4.61	5	0.92	3.26	0.008

유의수준 $p < 0.05$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 7 참조).

나이는 50대와 60대가 높은 평균치가 나왔으며,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적 제약 또한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낮을수록 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는 생애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표 8 참조).

구조적 제약의 경우는 소득에 의해서만 유의 수준 $\alpha < 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100~15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경우에 구조적 제약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이었다. 이는 이용자 면접 당시 저소득층은 주로 젊은

표 8.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적 제약인지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나이	만 50~59세	2.61	0.62
	만 60세 이상	2.56	0.36
	만 40~49세	2.31	0.49
	만 20~29세	2.21	0.51
	만 30~39세	2.18	0.53
학력	중졸	2.65	0.43
	고졸	2.27	0.56
	대재, 대졸	2.23	0.50
	대학원졸 이상	1.78	0.49
생애 주기	노년기	2.61	0.47
	자녀결혼기	2.50	0.67
	자녀성년기	2.48	0.57
	자녀교육기	2.34	0.39
	자녀출산 및 양육기	2.11	0.53
	신혼기	1.96	0.69

표 9.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적 제약인지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소득	100~150만원 미만	3.02	0.56
	500만 원 이상	2.92	0.52
	300~500만원 미만	2.68	0.55
	150~200만원 미만	2.66	0.60
	200~300만원 미만	2.62	0.63

독신 신세대 계층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세대에서 제약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표 9 참조).

여가 제약의 경우, 기혼여성의 경우 내적 제약은 신혼기에, 대인적 제약은 자녀교육기에, 구조적 제약은 자녀 결혼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일반인을 모집단으로 한 경우는 자녀결혼기와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대인적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으나(표영희, 1997; 강석희, 1998), 공원 방문은 자녀결혼기의 경제적 부담이나 자녀출산 및 양육기의 여가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적 문제, 어린 자녀들이 문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여가제약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 근린공원의 방문제약요인을 밝혀 줌

은 국토에 경비와 시간을 들여 조성된 공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공원 조성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공원방문 제약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학력이 낮은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 내적 제약과 대인적 제약을 강하게 인지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구조적 제약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선행된 여가제약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것은 공원방문과 같이 단순한 여가행위도 일상이 아닌 행사(event)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여가는 기술연마를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여가와 차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반 여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제약조건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제약에 강한 지배를 받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인간 내적 제약과 대인적 제약 면에서는 소득에 따른 제약인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인 여가의 경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본인이 내적 제약을 극복하고 여가를 즐기기로 결정하여도 비슷한 계층에서 이에 동반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다시 대인적 제약을 인지하게 되고 제약의 극복과 포기 of 갈림길에 서게 되나, 공원방문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계층도 공원방문에 대해서는 내적, 대인적 제약을 약하게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각 도시별 근린공원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공원 조성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도시근린공원은 비교적 다른 여가활동과는 다르게 근린주구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생활패턴의 변화로 야간에 활동을 능동적으로 유발시키도록 생활과 밀착된 생활의 장으로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가지내 도시근린공원의 부족현상을 위해, 현재 지속적으로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마을마당 개념의 썸지공원이 들어서고 있으나 지방도시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이나 주거지에 존재하는 잠재적 공간을 이용, 적극적인 소공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계획상 면적은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접근의 불편함이나 시설의 미비, 매력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여 이용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넷째, 후광효과를 얻지 못해 나사기를 꺼리는 집단에 대한 해결로 전형적인 공간구성비율에 의한 획일적 공원조성보다는 근린주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을 갖춘 공원조성을 제안한다.

따라서, 중앙공원이나 그 도시 혹은 그 구를 대표하는 큰 상징적인 공원의 조성과 함께 자동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곳이 아닌 소규모지만 이웃에 위치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 또한, 야간의 이용을 배려하고 사용자의 욕구 수준을 배려한 작지만 아름답고 친근한 공원의 공급이 좁은 국토에 많은 경비를 들여 조성하는 도시근린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주 1. SPSS for Windows Release 10.0.1(SPSS Inc., 1999).

주 2. 제약평가 항목은 IA1.기초체력, IA2.육체적 장애, IA3.피로, IA4.마음의 여유, IA5.시간과 경제적 낭비, IA6.신앙, IA7.외모, IA8.귀찮음, IA9.부상, IA10.나쁜 경험, IA11.주위의 눈치, IE1.가족의 시간부족, IE2.가족의 비선호, IE3.가족이 나와 함께 하길 싫어함, IE4.가족의 반대, IE5.가족과 함께 할만한 공원부재, IE6.가족과 함께 하지 않은 죄책감, IE7.가족의 허약, IE8.방문 불편, IE9.동료의 시간부족, IE10.동료가 멀리 있음, IE11.동료와 방문하기에 교통불편, IE12.동료의 허약, S1.직장일로 시간부족, S2.가족 돌보기로 시간부족, S3.경조사, S4.방문에 많은 시간소요, S5.접근의 불편, S6.교통비, S7.공원 없음, S8.가고 싶은 공원없음, S9.공원의 혼잡, S10.낮은 시설수준, S11.편한 시간에 이용할 공원없음, S12.공원위치 모름, S13.치안, S14.야간조명.

주 3. 인간내적 제약(Intrapersonal Constraints): 스트레스, 우울함, 분노, 친족과 비친족 준거그룹의 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다양한 여가활동의 유용성과 적절성의 주관적 평가와 관련된 제약.

주 4. 대인적 제약(Interpersonal Constraints): 개인의 여가선택에 대해서 보다는 가족여가에 더 관련이 많고, 특정한 여가활동에 대한 결합된 선호에 영향을 주거나 배우자 관계의 결과에 따라 일어나는 제약.

주 5. 구조적 제약(Structural Constraints): 가족생애주기, 가족경제자원, 계절, 기후, 시간 스케줄, 기회의 유용성(유용성에 대한 지식) 등과 관련된 제약.

주 6. 후광효과(halo effect) : 후광효과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

건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 특정한 하나의 특징으로 인해 전반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어떤 대상의 한 두 가지 특성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나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지각의 속성을 후광효과라고 한다.

인용문헌

1. 강석희(1998)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 김규만(1992) 도시공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김무창(1994) 도시민의 여가와 공원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시 남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용수, 김수봉(1989) 대구시 도시공원의 성격에 따른 이용자 만족요인 및 행태분석. 한국조경학회지 17(1): 17-24.
5. 김유일, 황강하(1989) 도시근린공원의 평가: 이용자와 지역주민(비이용자)의 행태 비교.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40(1): 342-349.
6. 김한도(1995) 도시 공원의 이미지와 이용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홍운(1989) 도시공간기능에서의 여가와 도시공원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3: 71-87.
8. 대전광역시(2001)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현황. 대전: 대전광역시.
9. 박승범(1991)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옥외위락기능과 만족도의 계량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8(4): 127-140.
10. 박영수(1988) 이용자 만족도에 따른 시민공원의 설계 관련성에 관한 연구: 여의도 지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신석영(1982) 이용자 의식 및 실태분석을 통한 도시공원설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 신희수(1998) 여가공간으로서 도시공원 이용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안진성(1999) 도시소공원 이용실태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정미(1997)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정화, 김준기(1996) 테마의 시대. 서울: 세진사.
16. 전영철(1996) 도시공원이용자의 여가활동과 이용행태분석을 통한 활성화-서울대공원을 중심으로. 관광개발논총 16(1): 217-245.
17. 정영한(1994) 도시근린공원의 이용후 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최기수, 김한배(1995) 대도시 주민의 옥외여가시설 선택모형을 기초로 한 시설지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1): 123-239.
19. 최영철, 김진선(2001) 도시근린공원의 적정조도모형. 한국조경학회지 29(3): 29-37.
20. 표영희(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계약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 213-221.
21. 허 준(1990) 서울시 근린공원 이용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 Jackson, E. L.(1988)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 10: 203-215.
23. Parker, S.(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24. Rohe, W. M., and R. J. Burby(1988) Fear of Crime in Public Housing. Environment and Behavior 20(6): 700-720.

원 고 접 수 : 2004년 2월 23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4년 3월 24일

3인익명 심사필